

QSCC II 設問紙 問項에서의 體質別 應答 差異 比較 分析 研究

박은경* · 박성식*

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of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based on Sasang institution's differences-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Park Eun-kyung · Park Seong-sik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The problem lies in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is a subjectiveness of diagnosis that the result of diagnosis varies according to the doctors. In order to supplement to this demerit, multiple approach has done to diagnose objectively.

This study has focused 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questionnaire which considered as a basic data to identify constitution

By analysing the tendency of the respondents who has defined constitution by clinical diagnosis and comparing of their answers, the result of their constitution analysis by our questionnaire were re-examined. The answer of each question to each constitution were tested how it is relevant to a scale of a constitution.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there is limitation to find out constitution by the questionnaire we used, one we hope that suitable questionnaire will be developed for the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 : QSCC II, Sasang constitution, Tendency of the respondent, constitution classification.

1. 緒 論

동무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¹⁾에서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크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선천적인 체질의 차이를 논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병증 및 치료방법이 상이함을 주장하였

다. 이러한 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마는 容貌詞氣, 性質才幹, 恒心, 心慾, 生理的인 證(完實無病), 病理的인 證(大病, 重病, 險證)등을 제시²⁾하였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한 체질진단의 방법은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이 강조되므로 사상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나 실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박은경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 031-710-3723
E-mail) peemang2000@hanmail.net

제 임상에서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어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여기에 기초를 둔 체질진단의 객관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방법^{3,7)}, 유전자 분석법^{8,9)}, 면역혈청학적 방법¹⁰⁾, EAV를 이용한 방법^{11,12)}, 지문 분석법¹³⁾, 맥진을 이용한 방법¹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으며, 『동의수세보원』의 내용에 얼마나 충실하는지의 측면에서는 재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의수세보원』을 근거로 육체적 체형과 정신적 기질을 포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졌고,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설문지 중에서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QSCC I 을 제외¹⁵⁾하고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16,17)}와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18,19)}의 두 종류의 설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였다. 이것들은 일차적인 체질의 변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문항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며, 문항의 내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이해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써 이번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고, 이번 연구는 그 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의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임상적 진단을 거친 조사대상자의 최종체질과 설문지를 통한 체질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밝히고, 또한 각 설문 문항에서 체질별 응답성향을 분석하여 한 체질의 분류 척도로 채택된 문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설문지로서 체질을 판별하는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체질 감별의 수단으로써의 설문지에 대한 재평가 결과 몇 가지 지론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현재 체질진단 시 일차적 평가로 활용되고 있는 설문지의 진단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지 재평가 작업이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동국대학교 부속 분당 한방병원의 외래환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18,19)}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남녀별, 연령별 분포

	≤19세	20-29	30-39	40-49	≥50	합계
남	2 (1.4%)	109 (75.1%)	26 (17.9%)	3 (2.1%)	5 (3.5%)	145 (100.0%)
여	1 (1.8%)	41 (74.6%)	5 (9.1%)	5 (9.1%)	3 (5.4%)	55 (100.0%)

2. 체질진단방법

체질진단은 조사대상자의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性, 生理的 및 病理的 證 등 이체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밝힌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사상의학 전공자가 여러 항목을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체질을 최종 분류하였고, 침이나 약 등의 반응은 체질 결정에 참고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의 체질별, 남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체질별, 남녀별 분포. n : 명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남자	60 (30.0%)	45 (22.5%)	40 (20.0%)	145 (72.5%)
여자	17 (8.5%)	25 (12.5%)	13 (6.5%)	55 (27.5%)
합계	77 (38.5%)	70 (35.0%)	53 (26.5%)	200 (100.0%)

3.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200명의 체질을 사상 전공자에 의해 먼저 분류한 후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한 설문지에서의 체질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QSCCⅡ는 김선호 등(1996)에 의해 타당화가 검증된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 Sode 전자의 사상체질분류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SCCⅡ^{18,19)}의 체

질을 분류하였다. 이후 임상적 진단을 거친 조사대상자의 최종체질과 설문지를 통한 체질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밝히고, 또한 각 설문 문항에서 체질별 응답성향을 분석하여 한 체질의 분류 척도로 채택된 문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체질 판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설문지 상에서의 체질 결과는 최종 체질에 참고로 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의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性, 生理的 및 病理的 證 등 이체가 『동의수세보원』에서 밝힌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사상의학 전공자가 여러 항목을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체질을 최종 분류하였음을 거듭 밝힌다.

4. 통계

설문지 문항의 답안은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질문과 체질간의 연관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R)와 P값에 의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 그 중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질문을 재분석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한 세부항목과 각 체질간의 개별 연관성의 정도를 검증하였다. (유의수준 $P < 0.05$)

III. 結果

1.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 문항별 체질 분포의 결과

설문지 전체 문항 121개 중에서 1번 문항에서 15번 문항까지는 선다형 문항이고, 16번부터 121번까지는 일처리와 장단점, 대인관계, 평소의 마음, 문제점, 감정특성, 행동특성, 몸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그렇다(O), 아니다(X)로 응답하는 문항이다. 총 121문항을 각 문항별로 구분하여 체질 변별력에 있어 타당성 및 유의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분석에서 체질 변별력이 없는 문항이 55문항이었고, 체질 변별력을 가진 문항은 66문항이었다.

(1)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문항

총 121문항 중 55문항이 체질 변별력이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이 문항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1) 세 체질모두 한 세부문항으로 치우치게 응답하여 체질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

① 세 체질 모두 'O'라고 대부분 응답

번호	설문 내용	응답률	p값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63.5%	0.901

② 세 체질 모두 'X'라고 응답

번호	설문 내용	응답률	p값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64.0%	0.134
32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이다	66.5%	0.844
36	절도가 있고 엄격한 편이다	75.5%	0.713
42	나는 사람을 볼때 우선 학력을 본다	91.5%	0.878
43	나는 사람을 볼때 그 사람이 영리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73.0%	0.613
44	나는 사람을 볼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70.5%	0.350
46	나는 사람을 볼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86.0%	0.482
47	나는 사람을 볼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78.5%	0.789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78.0%	0.236
62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하다	71.5%	0.547
72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78.0%	0.056
74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88.5%	0.238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68.0%	0.233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82.5%	0.227
82	일 할 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67.0%	0.218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70.5%	0.312
85	자신에게는 소홀히하고 남에게는 깍듯이 대한다	77.0%	0.178
86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는데는 인색한 편이다	86.5%	0.673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때가 종종 있다	88.5%	0.238
91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82.5%	0.283

번호	설문 내용	응답률	p값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84.0%	0.081
93	집안 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81.0%	0.222
96	말로는 서로 툭 터놓고 지내자해도 실제로는 이것을 꺼린다	71.5%	0.793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79.5%	0.602
102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92.0%	0.065
106	손발에 땀이 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95.5%	0.348
107	코밑에 땀이 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96.0%	0.562
108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82.0%	0.174
115	평소 건강할 때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74.0%	0.181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71.0%	0.189
119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아플 때가 있다	74.5%	0.673
121	겨울철에 찬 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97.5%	0.124

③ 세 체질 모두 '④'에 대부분 응답

번호	설문 내용	응답률	p값
14	다음 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70.5%	0.505

④ 기타

번호	설문 내용	분석 내용	응답률	p값
7	당신은 어떤 음식	세부문항 ②, ③에 대부분응답	83.5%	0.052

2) 각 세부 문항에 고루 응답하여 뚜렷한 응답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문항

번호	설문 내용	p값
11	당신의 손과 발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0.255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0.490
40	나는 사람을 볼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린다	0.886
41	나는 사람을 볼때 그 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649
45	나는 사람을 볼때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0.057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0.057
56	한 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0.058

번호	설문 내용	p값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0.121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0.178
66	별 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0.792
68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0.945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0.056
71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0.217
80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0.294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0.833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0.123
103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0.168
109	몸이 안 좋으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0.318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0.079
118	간혹 눈 주위가 뻑뻑할 때가 있다	0.194

(2)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문항

1>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태음인은 ①에 많이 응답하였고, 소음인은 ③에, 소양인은 ②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①	44(57.1%)	8(11.4%)	9(17.0%)	61
1-②	25(32.5%)	34(48.6%)	39(73.6%)	98
1-③	8(10.4%)	28(40.0%)	5(9.4%)	41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태음인은 ①에 많이 응답하였고, 소음인은 ③에, 소양인은 ②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①	49(63.6%)	3(4.3%)	2(3.8%)	54
2-②	24(31.2%)	31(44.3%)	41(77.4%)	96
2-③	3(3.9%)	36(51.4%)	10(18.9%)	49
무응답자	1(1.3%)	0(0.0%)	0(0.0%)	1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음인이 ②에 많이 응답하여 타 체질과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세부 문항 분석에서 ③은 세 체질 모두에서 40%이상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체질 변별력이 없는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①	21(27.3%)	6(8.6%)	21(39.6%)	48
3-②	22(28.6%)	31(44.3%)	9(17.0%)	62
3-③	34(44.2%)	33(47.1%)	23(43.4%)	90

4> 다음 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음인은 ④에, 소양인은 ②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4-①	8(10.4%)	3(4.3%)	7(13.2%)	18
4-②	15(19.5%)	11(15.7%)	30(56.6%)	56
4-③	23(29.9%)	8(11.4%)	7(13.2%)	38
4-④	20(26.0%)	46(65.7%)	7(13.2%)	73
무응답자	11(14.3%)	2(2.9%)	2(3.8%)	15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음인은 ①에 많이 응답하였고, 소음인은 ②에, 소양인은 ③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①	58(75.3%)	4(5.7%)	6(11.3%)	68
5-②	2(2.6%)	41(58.6%)	18(34.0%)	61
5-③	16(20.8%)	23(32.9%)	28(52.8%)	67
무응답자	1(1.3%)	2(2.9%)	1(1.9%)	4

6> 당신의 가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음인은 ①에 많이 응답하였고, 소음인은 ②에, 소양인은 ③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①	49(63.6%)	3(4.3%)	3(5.7%)	55
6-②	2(2.6%)	46(65.7%)	9(17.0%)	57
6-③	13(16.9%)	9(12.9%)	24(45.3%)	46
6-④	11(14.3%)	10(14.3%)	14(26.4%)	35
무응답자	2(2.6%)	2(2.9%)	3(5.7%)	7

8>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음인이 ②에 많이 응답하여 타 체질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①	14(18.2%)	34(48.6%)	23(43.4%)	71
8-②	62(80.5%)	35(50.0%)	29(54.7%)	126
무응답자	1(1.3%)	1(1.4%)	1(1.9%)	3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음인은 ①에 많이 응답하였고, 소음인은 ②에, 소양인은 ③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9-①	39(50.6%)	6(8.6%)	4(7.5%)	49
9-②	10(13.0%)	36(51.4%)	8(15.1%)	54
9-③	19(24.7%)	21(30.0%)	33(62.3%)	73
9-④	7(9.1%)	6(8.6%)	8(15.1%)	21
무응답자	2(2.6%)	1(1.4%)	0(0.0)	3

10>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태음인은 ①에 많이 응답하였고, 소음인은 ②에, 소양인은 ③에 많이 응답하였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0-①	39(50.6%)	8(11.4%)	5(9.4%)	52
10-②	13(16.9%)	45(64.3%)	11(20.8%)	69
10-③	24(31.2%)	14(20.0%)	37(69.8%)	75
무응답자	1(1.3%)	3(4.3%)	0(0.0)	4

12>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④에 응답하는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②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2-①	9(11.7%)	1(1.4%)	10(18.9%)	20
12-②	10(13.0%)	1(1.4%)	21(39.6%)	32
12-③	30(39.0%)	22(31.4%)	10(18.9%)	62
12-④	27(35.1%)	45(64.3%)	9(17.0%)	81
무응답자	1(1.3%)	1(1.4%)	3(5.7%)	5

13> 속마음에 관한 표현 중 당신과 가까운 쪽은 어느 것입니까?

태음인은 소음인, 소양인에 비해 ③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3-①	4(5.2%)	6(8.6%)	7(13.2%)	17
13-②	22(28.6%)	17(24.3%)	18(34.0%)	57
13-③	40(51.9%)	13(18.6%)	14(26.4%)	67
13-④	5(6.5%)	26(37.1%)	9(17.0%)	40
무응답자	6(7.8%)	8(11.4%)	5(9.4%)	19

15> 다음 중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②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5-①	8(10.4%)	3(4.3%)	7(13.2%)	18
15-②	16(20.8%)	12(17.1%)	32(60.4%)	60
15-③	35(45.5%)	40(57.1%)	8(15.1%)	83
15-④	14(18.2%)	14(20.0%)	4(7.5%)	32
무응답자	4(5.2%)	1(1.4%)	2(3.8%)	7

16> 월급생활 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6 “O”	27(35.1%)	9(12.9%)	21(39.6%)	57
“X”	50(64.9%)	61(87.1%)	32(60.4%)	143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7 “O”	19(24.7%)	3(4.3%)	21(39.6%)	43
“X”	58(75.3%)	67(95.7%)	32(60.4%)	157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8 “O”	31(40.3%)	11(15.7%)	29(54.7%)	71
“X”	46(59.7%)	59(84.3%)	24(45.3%)	129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이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나타나 체질간 응답 분포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 분석상 인정되었다. 소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수가 응답하여 특징적이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9“O”	16(20.8%)	3(4.3%)	23(43.4%)	42
“X”	61(79.2%)	67(95.7%)	30(56.6%)	158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 “O”	11(14.3%)	8(11.4%)	21(39.6%)	40
“X”	66(85.7%)	62(88.6%)	32(60.4%)	160

22> 진득하고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2 “O”	46(59.7%)	38(54.3%)	14(26.4%)	98
“X”	31(40.3%)	32(45.7%)	39(73.6%)	102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3 “O”	30(39.0%)	43(61.4%)	18(34.0%)	91
“X”	47(61.0%)	27(38.6%)	35(66.0%)	109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4 “O”	52(67.5%)	63(90.0%)	30(56.6%)	145
“X”	25(32.5%)	7(10.0%)	23(43.4%)	55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이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높아 체질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5 “O”	32(41.6%)	13(18.6%)	35(66.0%)	80
“X”	45(58.4%)	57(81.4%)	18(34.0%)	120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6 “O”	23(29.9%)	6(8.6%)	24(45.3%)	53
“X”	54(70.1%)	64(91.4%)	29(54.7%)	147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7 “O”	42(54.5%)	53(75.7%)	20(37.7%)	115
“X”	35(45.5%)	17(24.3%)	33(62.3%)	85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8 “O”	11(14.3%)	5(7.1%)	17(32.1%)	33
“X”	66(85.7%)	65(92.9%)	36(67.9%)	167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9 “O”	56(72.7%)	56(80.0%)	26(49.1%)	138
“X”	21(27.3%)	14(20.0%)	27(50.9%)	62

30>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0 “O”	15(19.5%)	34(48.6%)	5(9.4%)	54
“X”	62(80.5%)	36(51.4%)	48(90.6%)	146

31> 민첩하고 용감하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1 “O”	11(14.3%)	6(8.6%)	19(35.8%)	36
“X”	66(85.7%)	64(91.4%)	34(64.2%)	164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3 “O”	42(54.5%)	52(74.3%)	20(37.7%)	114
“X”	35(45.5%)	18(25.7%)	33(62.3%)	86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체질간 응답의 차이는 통계분석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4 “O”	23(29.9%)	7(10.0%)	28(52.8%)	58
“X”	54(70.1%)	63(90.0%)	25(47.2%)	142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두 체질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5 “O”	53(68.8%)	31(44.3%)	31(58.5%)	115
“X”	24(31.2%)	39(55.7%)	22(41.5%)	85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7 “O”	31(40.3%)	22(31.4%)	32(60.4%)	85
“X”	4(5.7%)	48(68.6%)	18(34.0%)	115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39 “O”	27(35.1%)	6(8.6%)	22(41.5%)	55
“X”	50(64.9%)	64(91.4%)	31(58.5%)	145

49>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소양인이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49 “O”	24(31.2%)	16(22.9%)	26(49.1%)	66
“X”	53(68.8%)	54(77.1%)	27(50.9%)	134

50> 처음에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자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많으며, 이러한 체질간 응답의 차이는 통계 분석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0 “O”	47(61.0%)	58(82.9%)	15(28.3%)	120
“X”	30(39.0%)	12(17.1%)	38(71.7%)	80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1 “O”	20(26.0%)	42(60.0%)	7(13.2%)	69
“X”	57(74.0%)	28(40.0%)	46(86.8%)	131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2 “O”	22(28.6%)	50(71.4%)	21(39.6%)	93
“X”	55(71.4%)	20(28.6%)	32(60.4%)	107

53> 인내심이 많다.

이 질문에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수가 응답하여 두 체질간 응답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태음인과 소음인 사이, 소음인과 소양인 사이에서의 응답차이는 통계 분석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3 “O”	39(50.6%)	30(42.9%)	14(26.4%)	83
“X”	38(49.4%)	40(57.1%)	39(73.6%)	117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4 “O”	21(27.3%)	6(8.6%)	20(37.7%)	47
“X”	56(72.7%)	64(91.4%)	33(62.3%)	153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한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59 “O”	24(31.2%)	40(57.1%)	19(35.8%)	83
“X”	53(68.8%)	30(42.9%)	34(64.2%)	117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0 “O”	31(40.3%)	43(61.4%)	23(43.4%)	97
“X”	46(59.7%)	27(38.6%)	30(56.6%)	103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소음인은 태음인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1 “O”	21(27.3%)	7(10.0%)	12(22.6%)	40
“X”	56(72.7%)	63(90.0%)	41(77.4%)	160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3 “O”	6(7.8%)	0(0.0)	10(18.9%)	16
“X”	71(92.2%)	70(100.0%)	43(81.1%)	184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많았고, 이러한 체질간의 응답 차이는 통계 분석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4 “O”	20(26.0%)	32(45.7%)	6(11.3%)	58
“X”	57(74.0%)	38(54.3%)	47(88.7%)	142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5 “O”	15(19.5%)	31(44.3%)	4(7.5%)	50
“X”	62(80.5%)	39(55.7%)	49(92.5%)	150

67> 앞에 나서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67 “O”	35(45.5%)	47(67.1%)	16(30.2%)	98
“X”	42(54.5%)	23(32.9%)	37(69.8%)	117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73 “O”	35(45.5%)	39(55.7%)	9(17.0%)	83
“X”	42(54.5%)	31(44.3%)	44(83.0%)	117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75 “O”	19(24.7%)	5(7.1%)	20(37.7%)	44
“X”	58(75.3%)	65(92.9%)	33(62.3%)	156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77 “O”	35(45.5%)	45(64.3%)	15(28.3%)	95
“X”	42(54.5%)	25(35.7%)	38(71.7%)	105

79>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소음인은 소양인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응답하여 두 체질간의 응답 차이가 있음을 통계 분석상 확인되었다. 그러나, 태음인과 소음인 사이,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응답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79 “O”	10(13.0%)	6(8.6%)	14(26.4%)	30
“X”	67(87.0%)	64(91.4%)	39(73.6%)	170

81> 모임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소음인은 태음인에 비해 “그렇다”라고 많이 응답하여 두 체질간의 응답 차이가 있음을 통계 분석상 확인되었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1 “O”	27(35.1%)	39(55.7%)	22(41.5%)	88
“X”	50(64.9%)	31(44.3%)	31(58.5%)	112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3 “O”	9(11.7%)	4(5.7%)	15(28.3%)	28
“X”	68(88.3%)	66(94.3%)	38(71.7%)	172

8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7 “O”	22(28.6%)	4(5.7%)	13(24.5%)	39
“X”	55(71.4%)	66(94.3%)	40(75.5%)	161

88>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하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8 “O”	29(33.7%)	47(67.1%)	13(24.5%)	89
“X”	48(62.3%)	23(32.9%)	40(75.5%)	111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89 “O”	13(16.9%)	39(55.7%)	6(11.3%)	58
“X”	64(83.1%)	31(44.3%)	47(88.7%)	142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소양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94 “O”	39(50.6%)	42(60.0%)	12(22.6%)	93
“X”	38(49.4%)	28(40.0%)	41(77.4%)	107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95 “O”	21(27.3%)	38(54.3%)	10(18.9%)	69
“X”	56(72.7%)	32(45.7%)	43(81.8%)	131

98>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소음인은 소양인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수가 응답하여 두 체질간 응답에 통계적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태음인과 소음인 사이,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응답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98 “O”	8(10.4%)	6(8.6%)	12(22.6%)	26
“X”	69(89.6%)	64(91.4%)	41(77.4%)	174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01“O”	22(28.6%)	41(58.6%)	9(17.0%)	72
“X”	55(71.4%)	29(41.4%)	44(83.0%)	128

104> 번비가 있으면 건디기 힘들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04“O”	15(19.5%)	3(4.3%)	10(18.9%)	28
“X”	62(80.5%)	67(95.7%)	43(81.1%)	172

105>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05“O”	11(14.3%)	37(52.9%)	12(22.6%)	60
“X”	66(85.7%)	33(47.1%)	41(77.4%)	140

110>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태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10“O”	29(37.7%)	7(10.0%)	6(11.3%)	42
“X”	48(62.3%)	63(90.0%)	47(88.7%)	158

11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이러한 체질간 응답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11“O”	23(29.9%)	54(77.1%)	30(56.6%)	107
“X”	54(70.1%)	16(22.9%)	23(43.4%)	93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12 “O”	23(29.9%)	45(64.3%)	11(20.8%)	79
“X”	54(70.1%)	25(35.7%)	42(79.2%)	121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13 “O”	13(16.9%)	25(35.7%)	8(15.1%)	46
“X”	64(83.1%)	45(64.3%)	45(84.9%)	154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16 “O”	18(23.4%)	30(42.9%)	10(18.9%)	58
“X”	59(76.6%)	40(57.1%)	43(81.1%)	142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 땀이 많이 난 적이 있다.
소음인은 타 체질에 비해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번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120 “O”	11(14.3%)	28(40.0%)	12(22.6%)	51
“X”	66(85.7%)	42(60.0%)	41(77.4%)	149

표 3-1. 각 체질간 통계적 의미가 있는 문항

번호	설문내용	(1)	(2)	(3)	(4)
1	당신의 체격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전체적)	○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비만,수척관계)	○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	
4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부위별)	○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6	당신의 가슴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7	당신은 다음중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체질변별력없음			
8	당신의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수족온냉관계)		○		○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0	당신의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한출관계)	○			
11	당신의 손과 발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체질변별력 없음			
12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3	속마음에 관한 표현 중 당신과 가까운 쪽은		○		○
14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체질변별력없음			
15	다음중 당신은 어느쪽입니까(일처리, 생활습관)			○	○
16	월급보다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목돈버는 것이 좋다		○	○	
17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	○	
18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	○	
19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20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	○
21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22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	○
23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	○	
24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	○	
25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귀다	○			
26	개인적인 일보다 사회적인 일에 열심이다		○	○	
27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	○	
28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	○
29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	○
30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	○	
31	민청하고 융감하다			○	○
32	나는 무슨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체질변별력없음			
33	단정하고 신중하다		○	○	
3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			
35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		
36	절도가 있고 엄격한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37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	○
38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체질변별력없음			
39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	
40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올바를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린다	체질변별력없음			

- *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2) 태음인과 소음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3)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4) 태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표 3-2. 각 체질간 통계적 의미가 있는 문항

번호	설문내용	(1)	(2)	(3)	(4)
41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심성이 바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2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43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영리한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4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부지런한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5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성실한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6	나는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4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사람이 능력이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4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49	일을 별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
50	처음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51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	
52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	○	
53	인내심이 많다				○
54	과장하기를 잘한다		○	○	
55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56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간다				
57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58	싫증을 잘 느끼며 체념을 쉽게 한다				
59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 한다		○	○	
6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	
61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		
62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깊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 속상하다				
63	밖으로 나돌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	
64	새로운 일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			
65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	○	
66	별 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6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	○	
68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나서 주체할 수가 없다				
69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70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71	평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신을 내세우고 싶다				
72	안철부절 못 할 때가 많다				
73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
74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75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	○	
76	있어도 없는 척하여 실속을 차리는 편이다				
77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78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79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	
80	접점은 척 할 때가 많다				

- *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2) 태음인과 소음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3)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4) 태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표 3-3. 각 체질간 통계적 의미가 있는 문항

번호	설문내용	(1)	(2)	(3)	(4)
81	모일이 있을 때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82	일 할 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83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열성이다			○	○
84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85	자신에게는 소홀히하고 남에게는 깃듯이 대한다	체질변별력없음			
86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는데는 인색한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8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나에게 돌아온다		○	○	
88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	
89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	
90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91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9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93	집안 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체질변별력없음			
9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	○
9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	○	
96	말로는 서로 툭터놓고 지내자고 해도 실제로는 이것을 꺼린다	체질변별력없음			
97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98	남의 일에 열심히하면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99	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00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낄 때가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01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	○	
102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체질변별력없음			
103	변을 보고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을 때가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04	변비가 있으면 견디기 힘들다		○	○	
105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		○	○	
106	손발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07	코밑에 땀이 나면서 몸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낀 적이 많다	체질변별력없음			
108	몸이 안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	체질변별력없음			
109	몸이 안좋으면 변비가 오는 경향이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110	몸이 안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		○
111	몸이 안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11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	○	
11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이 있었다		○	○	
11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115	평소 건강할 때에도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체질변별력없음			
116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릴 때가 있다		○	○	
117	간혹 눈동자가 아플 때가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118	간혹 눈 주위가 뻑뻑할 때가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119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아플 때가 있다	체질변별력없음			
120	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아 진적이있다		○	○	
121	겨울철에 찬 음식을 먹어도 땀이 많이 난다	체질변별력없음			

- *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2) 태음인과 소음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3) 소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 (4) 태음인과 소양인간에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이는 문항

IV. 考察 및 結論

최근 병증의 진단적 측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체질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상의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체질의 진단 자체가 진단하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체질 진단 결과의 주관성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체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그 동안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체형기상이나 용모사기에 대한 연구 및 각종 진단기기를 이용한 연구, 손바닥의 지문을 통한 연구, 유전자 연구 등이 그것이며, 이들 연구의 단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체질 진단의 객관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기초적인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 현재 임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지는 사상변증론 소고²⁰⁾에 이어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¹⁶⁾가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QSCC의 타당화 연구²¹⁾,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²²⁾, 사상체질분류검사지(I)의 타당화 연구¹⁷⁾ 등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사상체질분류검사지(I)중에서 문항적격도가 높은 문항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에 첨가하고 설문문항을 전문가와 같이 논의한 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를 개발하였다. 그 후 QSCC II의 표준화 연구¹⁸⁾와 QSCC II의 타당화 연구¹⁹⁾를 통하여 현재 임상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지는 일차적인 체질의 변별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중복된 질문의 삭제 및 문항수의 재조정 및 설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이번 연구를 착수한 것이다.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의 문항 분석은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연구²³⁾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임상에서는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를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보면 체질 변별력이 없는 문항수가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121문항 중에서 체질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은 66 문항이었고, 나머지 55문항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문항으로 분석

되었다. 이 중 문항번호 68에서 72까지의 감정특성을 묻는 항목은 다섯 개 문항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문항(35번-47번)은 76.9%, 몸상태를 묻는 문항(102번-121번)은 63.2%가 유의성이 없는 문항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을 더욱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세 체질 모두 특징적으로 응답한 경우 혹은 두 체질에서 특징적으로 응답성향을 보여 자연히 나머지 체질이 구분되어지는 방법으로 체질 변별이 가능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모두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은 문항번호 1, 2, 4, 5, 6, 9, 10, 12, 19, 25, 34, 50, 64, 77, 111 등의 15문항이었다.

태음인과 소음인간의 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은 문항 번호 3, 8, 13, 16, 17, 18, 23, 24, 26, 27, 30, 33, 35, 39, 51, 52, 54, 59, 60, 61, 63, 65, 67, 75, 81, 87, 88, 89, 95, 101, 104, 105, 110, 112, 113, 116, 120 등의 37문항이었다.

소음인과 소양인간의 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은 문항번호 3, 15, 16, 17, 18, 20,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7, 39, 49, 51, 52, 54, 59, 60, 63, 65, 67, 73, 75, 79, 83, 87, 88, 89, 94, 95, 98, 101, 104, 105, 112, 113, 116, 120 등의 44문항이었다.

태음인과 소양인간의 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은 8, 13, 15, 20, 22, 28, 29, 31, 37, 49, 53, 73, 83, 94, 110 등의 15문항이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얻은 몇 가지 지론은 다음과 같다.

1.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문항(55문항)은 삭제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설문지 문항을 간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 가지 체질간에서 모두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15문항)은 설문지를 통한 체질진단 시 기본적인 문항으로 먼저 선택되어질 수 있다(일차적 설문지).
3. 두 그룹간에서 유의성 있게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51문항)은 체질 진단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재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임상적 진단을 거친 조사대상자의

최종체질과 설문지를 통한 체질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밝혀 본 결과 현재의 체질 판정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문지로서 체질을 판별하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사, 137-142, 1986.
2.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19-128, 1997.
3. 高炳熙, 趙鏞珍, 崔昌錫 외 6인: 四象體質別 頭面部的 形態學의 特徵, 사상의학회지 8(1), 101-186, 1996.
4. 許萬會, 宋正模, 金達來, 高炳熙: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4(1), 107-148, 1992.
5. 洪錫喆, 이수경, 李義柱 외 5인: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01-142, 1996.
6. 李義柱, 李載九, 金貞娟, 宋正模: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43-160, 1998.
7. 洪錫喆, 이수경, 宋一炳: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0(1), 161-170, 1998.
8. 조동욱, 안선경, 김도균 외 5인: Amp-FLP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의학회지, 9(2), 163-173, 1997
9. 조동욱, 이창수, 고병희, 조황성: 유전자 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분석연구, 사상의학회지 8(2), 151-164, 1996
10. 梁基相: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清學的 研究, 서울, 경희한의대는문집 6(1), 33-45, 1983.
11.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EAV의 測定値와 四象體質類型 및 中風과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7(2), 59-88, 1995.
12. 한주석, 송일병: EAV의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7(1), 43-68, 1995.
13. 박성식, 최재영, 정민석 외 6인: 四象體質類型과 指紋 손바닥紋의 關聯性에 對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0(1), 81-99, 1998.
14. 洪錫喆: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體質別 脈狀과 脈診器에 의한 體質別 脈波의 比較, 大韓脈診學會紙 1(1), 79-100, 1995.
15. 朴性植, 朴恩慶, 崔載永: 設問紙에 의한 四象體質 判定의 一致度 分析, 사상의학회지, 11(1), 103-117, 1999.
16.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方法論 研究(제1보, 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1), 146-160, 1987.
17. 李義柱, 高炳熙, 宋一炳: 四象辨證內容 設問調査紙(I)의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7(2), 89-100, 1995.
18.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의 標準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8(1), 187-246, 1996.
19.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에 對한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8(1), 247-294, 1996.
20.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6(1), 40-47, 1985.
21.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妥當化 研究, 사상의학회지 5(1), 61-80, 1993.
22. 金達來: 設問紙를 이용한 體質鑑別方法의 信賴度에 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6(1), 89-94, 1994
23. 朴恩慶, 朴性植: 設問紙 問項에서의 體質別 應答 差異 比較分析研究, 사상의학회지 12(1), 157-172, 2000.